

국어 영역(B형)

제 1 교시

1

[1~3] 다음은 학교 토론 동아리에서 실시한 반대 신문식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최근 청소년 범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처벌 수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오늘은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입론해 주십시오.

찬성 1: 저희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범죄란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를 말합니다.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지만, 성인 범죄에 비하면 처벌이 매우 약한 편이죠. 특히 만 14세 미만의 경우 주로 교육과 선도를 목적으로 한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저희는 이런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범죄의 정도도 심해지고 발생률도 증가한다고 봅니다. 청소년들은 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낮다는 점이 특징인데, 현재와 같은 가벼운 처벌은 범죄 당사자에게 경각심을 주지 못합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범죄 재범률은 약 35%나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회자: 반대 측 확인 질문해 주십시오.

반대 2: 청소년들이 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낮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찬성 1: 예, 그렇습니다.

반대 2: 그러면 청소년들의 죄의식이 낮은 이유는 그들이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군요?

찬성 1: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반대 2: 이상 확인 질문 마치겠습니다.

사회자: 반대 측 입론해 주십시오.

반대 1: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은 현재와 같은 수위로도 충분합니다. 확인 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들은 아직 미성숙한 존재입니다. 이런 청소년들이 한때의 충동이나 실수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성인 범죄 수준의 강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범죄 심리 전문가 ○○○ 씨는 청소년들은 가치관이 형성되어 가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교화나 선도의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교육과 선도를 통해 스스로 반성할 기회를 주면 성숙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처벌 강화가 범죄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찬성 측 주장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범죄는 우발적 동기에 의해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우발적 범죄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재범률이 높은 이유가 반드시 경각심이 없기 때문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찬성 측 확인 질문해 주십시오.

찬성 1: _____ ㉠

(후략)

1. 위 토론 참여자들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회자는 사회적 관심사를 언급하며 논제 선정의 배경을 밝히고 있다.
- ② ‘찬성 1’은 구체적 통계 자료를 제시하며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 ③ ‘찬성 1’은 논제와 관련된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며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 ④ ‘반대 1’은 전문가의 견해를 근거로 제시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 ⑤ ‘반대 1’은 예상되는 반론을 언급하며 그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2. 다음은 위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이다. 이를 토론에 활용할 수 있는 입장과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철수는 교칙을 어겨 징계를 받은 후 친구들의 시선을 두려워했다. 하지만 선생님은 철수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이에 철수는 교칙을 준수하는 모범적인 학생으로 변해 갔다. 이처럼 인간은 타인으로부터 긍정적인 기대를 받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 그에 알맞은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를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한다.

입장	활용 방안
① 찬성	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낮은 이유가 주변 사람들의 기대감과 관련 있음을 제시할 때 활용할 수 있겠군.
② 찬성	교육과 선도를 목적으로 한 처벌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부각할 때 활용할 수 있겠군.
③ 반대	처벌을 강화하면 그에 대한 반발 심리로 인해 재범률이 증가할 수 있음을 제시할 때 활용할 수 있겠군.
④ 반대	처벌 강화보다 청소년 범죄자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도록 신뢰감을 주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할 때 활용할 수 있겠군.
⑤ 반대	청소년들이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강화할 때 활용할 수 있겠군.

3. ‘반대 1’의 입론을 고려할 때 ㉠에 들어갈 수 있는 확인 질문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범죄의 경중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 ② 청소년들이 교육과 선도의 기회를 악용할 수 있지 않나요?
- ③ 청소년들이 성인 수준의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④ 처벌을 강화하면 우발적 범죄가 더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 ⑤ 청소년 범죄의 동기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4~5] 다음은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성준: (화가 난 표정으로) 가람아! 지금 몇 신 줄 알아? ┌
가람: (의아해하는 표정으로) 4시잖아. 왜? [A] ┘
성준: 몰라서 묻는 거야? 우리 3시에 만나기로 했잖아. ┌
가람: ㉠ 어머, 정말? 난 4시로 알고 있었어. 어제 그렇게 말하 ┘
지 않았어?
성준: ㉡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아니. 정말 너무해. 난 분명 ┌
히 3시라고 했어. 너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닌 것 [B] ┘
같아.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가람: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며) 정말? 미안해. 일부러 ┌
그런 건 아니야. 어제 식당이 너무 시끄러워서 내가 [C] ┘
네 말을 잘못 들었나봐.
성준: ㉢ 그랬구나. 난 그것도 모르고 네가 아까 아무렇지도 않 ┌
게 4시라고 해서 솔직히 화가 났었어. 은정이 생일 파티 ┘
에 늦을까봐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알아?
가람: ㉣ 미안, 난 정말 네가 몇 시인지 물어보는 줄 알았어.
성준: 그래, 알았어. 이제 우리 빨리 생일 선물 사러 가자. 선물
로 뭐가 좋을까?
가람: 음, 요즘 우리 반 여자애들 보니까 에코백 많이 갖고 ┌
다니던데. [D] ┘
성준: 에코백? 그게 뭔데?
가람: 어, 천으로 만든 가방 있잖아. ┌
성준: 아, 그게 에코백이었어? 그럼 ○○ 상가에 갈까? ┘
가람: ㉤ △△ 상가에서 할인 행사하던데.
성준: 그럼 △△ 상가로 가자. 너 피곤해 보이는데 버스 타 [E] ┘
고 갈까?
가람: 그러지 뭐. ┌ ┘

4. 위 대화에서 [A] ~ [E]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A]: 비언어적 표현이 의미 전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 ② [B]: 청자의 경험이 화자의 발화 내용을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 ③ [C]: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상황이 메시지를 주고받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 ④ [D]: 의사소통 참여자의 배경지식이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 ⑤ [E]: 화자와 청자가 직접 대면하여 즉각적인 상호 반응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5. ㉠ ~ ㉤ 중,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 보 기 〉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대화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발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 하지만 때로는 발화 의도를 함축적으로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발화에는 그 의미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자는 대화의 맥락을 통해 이를 추론하게 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6. 다음은 학생이 작성한 건의문이다. <보기>에서 계획한 내용 중 건의문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건의문에 어떤 내용을 넣을까?

- ㉠ 학생 다수의 의견을 제시하며 건의 목적을 밝혀야겠어.
- ㉡ 학생들이 겪는 문제 상황을 중심으로 건의하게 된 배경을 드러내야겠어.
- ㉢ 예상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열거하여 건의 내용을 재차 강조해야겠어.
- ㉣ 예상 독자의 영향력을 언급하여 건의 내용이 수용 가능함을 강조해야겠어.
- ㉤ 건의 내용 수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겠어.

체육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회 체육부장 ○○○입니다. 늘 저희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애써 주시는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한 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점심시간에 체육 교구실을 개방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실제로 우리 학교는 체육 수업이 일주일에 한 번뿐이어서 운동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운동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운동 용품이 부족해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교실에서 잡담을 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심시간에 체육 교구실을 개방해서 공이나 줄넘기 등을 빌릴 수 있게 해 주시면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운동을 할 수 있고, 자투리 시간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어서 학교생활에 좀 더 활력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런 이유로 점심시간에 체육 교구실을 개방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다른 학생들이 건의 드렸을 때 교구실 관리 문제로 난색을 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각 반 체육부장들이 순서를 정해 관리하면 이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건의를 받아들여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 올림

- ① ㉠ ② ㉡ ③ ㉢ ④ ㉣ ⑤ ㉤

[7~8] 다음은 ‘공공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 글을 쓰기 위한 학생의 생각이고, <보기>는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개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공공자전거 시스템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전거를 빌려주는 제도라고 해.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체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대여해 주고 경제적, 환경적 효과를 거두었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주민들의 이용률이 낮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 그래서 공공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담은 글을 시청의 정책 담당자에게 보내, 시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해야겠어.

< 보 기 >

I. 서론: 공공자전거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

II. 본론

1. 공공자전거 이용 실태

가. 주민들의 공공자전거 이용률 저조

나. 공공자전거 운영 사업의 경제성 부족㉡

2. 공공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장애 요인㉢

가. 공공자전거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부족

나. 공공자전거 이용 기회 및 접근성 부족

3. 공공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

가. 공공자전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필요㉣

나. 공공자전거 이용 기회 확대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예산 지원

다. 공공자전거와 대중교통 간의 연계 체계 보완

III. 결론: 공공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한 공익 실현㉤

7. <보기>를 수정·보완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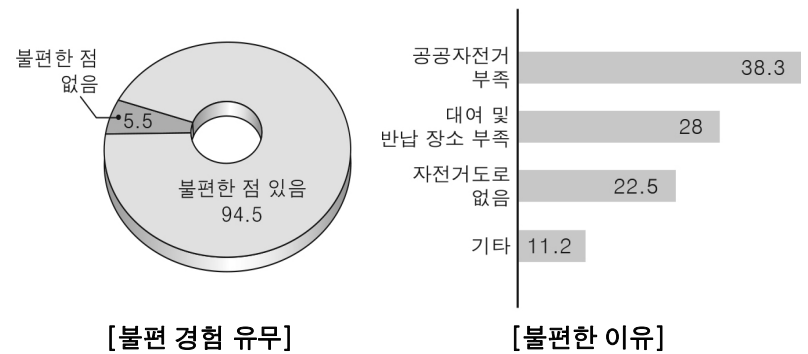
- ① 글을 쓰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을 ‘공공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필요성’으로 바꾼다.
- ② 상위 항목을 고려하여 ㉡을 ‘공공자전거 운영에 대한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 미비’로 바꾼다.
- ③ ‘II-3-다’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의 하위 항목으로 ‘공공자전거와 대중교통 간의 연계 체계 미흡’을 추가한다.
- ④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을 ‘공공자전거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로 바꾼다.
- ⑤ 글을 쓴 목적을 고려하여 ㉤을 ‘공공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 촉구’로 바꾼다.

8. 다음의 자료를 <보기>에서 활용할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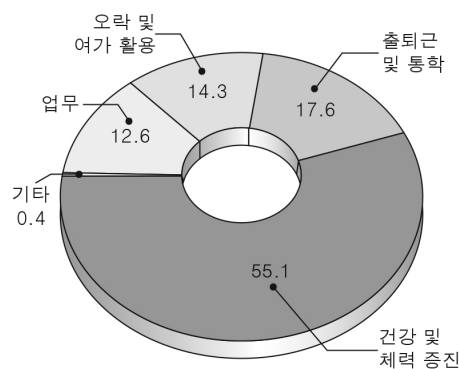
[3점]

() 설문 자료

1. 공공자전거 이용 시 불편 사항(%)



2. (%)



() 신문 기사

□□ 신문 ○○○○년 ○월 ○일

공공자전거와 대중교통과의 환승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95%에 달했으며, 공공자전거를 이용한 직후의 이동 수단으로 버스나 지하철을 선택한 사람은 18.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으로 환승하지 않는 이유로는 ‘공공자전거 대여 및 반납 장소와 버스 정류장, 지하철 역 사이의 거리가 멀어서’ 등을 들었다.

() 연구 자료

공공자전거 이용이 활발한 선진국의 경우, 역 근처에 공공자전거 대여 및 반납 장소 확대, 대중교통과의 무료 환승 체계 구축 등 환승 편의를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① (가)-1: ‘불편한 이유’ 항목을 활용하여, 공공자전거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를 이용 기회의 측면에서 분석하는 근거로 삼는다.
- ② (가)-2: ‘출퇴근 및 통학’ 항목의 수치에 주목하여, 대체교통수단으로서의 공공자전거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부족함을 밝히는 자료로 활용한다.
- ③ (가)-1, (나): 공공자전거 이용 시 불편함을 느낀 비율과 대중교통으로 환승하지 않는 이유에 주목하여, 공공자전거 운영의 문제점을 환기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 ④ (가)-2, (다): ‘건강 및 체력 증진’ 항목의 수치에 주목하여, 공공자전거가 대중교통과의 연계가 떨어지는 원인을 분석하는 근거로 삼는다.
- ⑤ (나), (다): 선진국의 사례를 활용하여, 환승 편의를 제공하는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공공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음을 주장하는 근거로 삼는다.

[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과제

교지 투고란에 ‘후배를 격려하는 글’을 써 보자.

과제 수행 기록 나의 글쓰기에 대하여

내가 수행할 과제는 교지 투고란에 ‘후배를 격려하는 글’을 쓰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격언이나 속담, 위인들의 일화 등을 찾아보고 그 중 하나를 활용하여 글을 작성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그 내용은 후배들이 친근하게 느끼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 내가 겪은 일을 떠올려 그 때 느낀 점을 글로 표현해 보았다. 그리고 변화된 현재의 내 모습을 덧붙여 한 편의 글을 완성하였다.

학생의 글

저는 중학교 친구들과 떨어져 홀로 다른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게다가 ㉠ 학교 성적 하락과 자격증 시험에도 불합격하면서 자신감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동아리에서 노인 요양원으로 봉사활동을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기소침해 있던 저는 별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몸이 불편하신 할머니들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 저는 평소 책 읽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별것 아니었지만 할머니들께서는 제가 책을 읽어드리는 내내 행복해하셨고, 저의 손을 꼭 잡아 주기도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통해 전해진 온기는 제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계속된 실패로 ㉢ 위축되어져 있었던 저는 요양원 봉사활동을 통해 제가 가진 작은 것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감을 찾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이 일을 겪은 뒤, 교내 토론대회와 전국 이야기대회에 참가하는 등 매사에 용기를 내어 도전하는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 저같이 겪더라도 자신이 가진 능력의 소중함을 알고 자신감을 갖기 바랍니다.

9. ‘과제 수행 기록’에 비추어 볼 때, 학생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활용한 주요 전략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한다.
- ② 예상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기 위해 구체적 경험을 제시한다.
- ③ 내용을 고려하여 공간적 순서에 따라 글을 조직한다.
- ④ 다른 글을 참조하여 내용을 조직하고 전개한다.
- ⑤ 내용의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수사법을 활용한다.

10. ㉠ ~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문장 내의 연결 관계가 어색하므로 ‘학교 성적이 하락하고 자격증 시험에도 불합격하면서’로 고쳐야겠어.
- ② ㉡은 글의 흐름과 어긋나는 문장이므로 삭제해야겠어.
- ③ ㉢은 피동 표현이 불필요하게 중복되었으므로 ‘위축되어’로 고쳐야겠어.
- ④ ㉣은 앞뒤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지 못하므로 ‘그런데’로 고쳐야겠어.
- ⑤ ㉤은 필요한 문장 성분이 빠져 있으므로 ‘저같이 어려움을 겪더라도’로 고쳐야겠어.

11. 다음은 표준 발음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일부이다. 이를 이해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표준 발음법】

제4장 제8항 받침소리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 7개 자음만 발음한다.

제5장 제19항 받침 ‘ㄱ, ㅇ’ 뒤에 연결되는 ‘ㄹ’은 [ㄴ]으로 발음한다.

제20항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한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1장 제1항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제1항 모음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

1. 단모음

ㅏ	ㅓ	ㅗ	ㅡ
a	eo	o	eu

제2장 제2항 자음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

1. 파열음

ㄱ	ㅋ	ㄷ	ㅌ	ㅂ
g, k	kk	d, t	t	b, p

2. 파찰음

ㅈ	ㅊ
j	ch

3. 마찰음

ㅅ	ㅎ
s	h

4. 비음

ㄴ	ㅁ	ㅇ
n	m	ng

5. 유음

ㄹ
r, l

[붙임 1]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

[붙임 2]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는다. 단 ‘ㄹㄹ’은 ‘ll’로 적는다.

제3장 제3항 고유 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는다.

- ① ‘종로’는 ‘Jongro’로 표기해야겠군.
- ② ‘탐라’는 ‘Tamna’로 표기해야겠군.
- ③ ‘벚꽃’은 ‘beotkkoj’으로 표기해야겠군.
- ④ ‘강릉’은 ‘Kangneung’으로 표기해야겠군.
- ⑤ ‘한라산’은 ‘Halrasan’으로 표기해야겠군.

12. <보기 1>의 ㉠, ㉡를 고려하여 문장을 수정한 사례를 <보기 2>에서 고른 것은?

〈보기 1〉

문장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정확한 단어를 선택해야 한다. 또 ㉡ 문장의 의미가 중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우리말 답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보기 2〉

	수정 전 문장	수정 후 문장
ㄱ	선생님께서는 앉아 있는 학생들을 <u>쳐다보았다</u> .	선생님께서는 앉아 있는 학생들을 <u>바라보았다</u> .
ㄴ	비속어의 사용을 <u>뿌리 뽑아</u> 근절해야 합니다.	비속어의 사용을 <u>근절해</u> 야 합니다.
ㄷ	우리 학급 반장이 <u>남학생</u> 과 <u>여학생</u> 두 명을 불렀다.	우리 학급 반장이 <u>남학생 한 명</u> 과 <u>여학생 한 명</u> 을 불렀다.
ㄹ	‘정확한 문장 표현’은 <u>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u> .	‘정확한 문장 표현’은 <u>매우 중요합니다</u> .

- | | | | |
|---|---|---|---|
| ㉠ | ㉡ | ㉠ | ㉡ |
| ① | ㄱ | ㉡ | ㄷ |
| ② | ㄴ | ㉡ | ㄹ |
| ③ | ㄷ | ㉡ | ㄹ |
| ④ | ㄷ | ㉡ | ㄹ |
| ⑤ | ㄷ | ㉡ | ㄹ |

13. <보기>의 자료를 바탕으로 ‘용언’에 대해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ㄱ. 갈씨가 덥다.
 ㄴ. 갈씨가 더워 온다. / 갈씨가 더워온다.
 ㄷ. 철수가 밥을 먹고 갔다. / * !수가 밥을 먹고갔다.
 ㄹ. 영희가 종이배를 접어 띄웠다.
 ⇒ 영희가 종이배를 접었다.+ !희가 종이배를 띄웠다.

*

- ㄱ, ㄴ으로 볼 때, 한 용언이 홀로 쓰이기도 하고 다른 용언과 어울려 쓰이기도 하는군.
- ㄴ의 경우, 뒤의 용언이 앞의 용언의 의미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군.
- ㄷ으로 볼 때, 문장 안에서 두 용언이 모두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띄어 써야 하는군.
- ㄴ과 ㄷ은 모두 ㄹ처럼 의미가 성립하는 두 문장으로 나눌 수 있겠군.
- ㄴ ~ ㄷ로 볼 때, 두 용언이 어울려 쓰일 경우 ‘-아/어’, ‘-고’와 같은 어미로 연결되는군.

14. 다음은 문법 수업의 내용을 정리한 학생의 노트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관형사**: 체언 앞에 놓여서 체언을 꾸며 주는 단어
예) 새 책에 이름을 적어 두었다.
- **관형어**: 체언 앞에서 체언을 꾸며 주는 문장성분
① 관형사
② 체언 + 관형격 조사
③ 용언의 어간 + 관형사형 어미

- **안긴문장(절)**: 다른 문장 속에서 하나의 성분처럼 쓰이는 홀문장
 ↳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어야 함
 ① **관형절**: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안긴문장(절), 이때 관형절은 ‘-(으)ㄴ’ ‘-는’ ‘-던’ 등의 관형사형 어미를 포함함.
 예) ‘무소유’는 내가 읽었던 책이다.

〈 보 기 〉

ㄱ. 어느 지역이든 유명한 관광지에는 있기 마련이다.
 ㄴ. 내가 산 꽃을 그녀의 화단에 옮겨 심었다.
 ㄷ. 나는 동전 다섯 개를 잃어버렸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 ㄱ의 ‘유명한’은 명사 ‘관광지’를 꾸며주고 있으므로 관형어라고 할 수 있군.
- ㄴ의 ‘그녀의’는 체언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하여 명사 ‘화단’을 꾸며주고 있으므로 관형어라고 할 수 있군.
- ㄴ의 ‘산’은 ‘사다’의 어간 ‘사-’에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결합한 것이므로 ‘내가 산’은 관형절이라고 할 수 있군.
- ㄷ의 ‘다섯’은 ‘개’를 꾸며주는 관형사이므로, ‘동전 다섯’은 관형절이라고 할 수 있군.
- ㄱ의 ‘어느’와 ㄷ의 ‘그’는 모두, 뒤에 나오는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사이자 관형어라고 할 수 있군.

15.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담화는 의사소통의 기본 단위에 따라 문어 담화와 구어 담화로 나눌 수 있다. 문어 담화의 대표적 유형에는 신문 기사가 있고, 구어 담화의 대표적 유형에는 일상 대화가 있다.

〈보기 2〉

(가) 신문 기사

택시 기사가 승객이 두고 내린 돈을 되찾아 준 사실이 알려져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시에서 택시 기사로 일하고 있는 ○○○씨(42세)는 지난 달 14일 새벽 1시경 자신의 택시에서 현금 120만원과 수표 1,000만 원이 든 가방을 발견한 후, 승객에게 가방을 돌려주기 위해 인근 경찰서로 가서 분실물 습득 신고를 하였다. 이후 가방을 되찾은 승객은 ○○○씨에게 사례를 하려 했으나 ○○○씨는 오히려 당연히 할 일을 했다고 하며 이를 사양했다고 한다.

(나) 대화

A: 야, 너 그 얘기 들었어?

B: 뭐?

A: 택시 기사가 경찰서에 돈 찾아 줬대.

B: (의아한 표정으로) 근데 그게 무슨 말이야?

A: 아니, 승객이 놓고 내린 돈가방을 경찰서에 신고했대. 사례금을 줘는데도 안 받고.

B: 정말? 대단하네, 그 사람.

A: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지. 난 이런 기사 읽으면 웬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

- ① (가)는 육하원칙에 따라 내용을 전달하는 것으로 보아, 문어 담화의 체계적인 특성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나)의 ‘대단하네, 그 사람.’으로 보아, 구어 담화에서는 어순을 바꾸어 사용하기도 하는군.
- ③ (나)에서 ‘그런데’를 ‘근데’로, ‘나는’을 ‘난’으로 줄여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구어 담화에는 줄임말이 자주 사용되는데.
- ④ (가)에 비해 (나)는 조사나 주어 등을 생략한 것으로 보아, 문어 담화에 비해 구어 담화에서는 문법 요소들이 자주 생략됨을 알 수 있군.
- ⑤ (나)와 달리 (가)는 문자 언어를 중심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것으로 보아, 문어 담화가 구어 담화에 비해 정보의 기록성과 보관성이 떨어짐을 알 수 있군.

16. <보기>를 바탕으로 탐구 자료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선생님: 객체높임법은 목적어, 부사어 자리에 높임의 대상이 올 때 이를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객체를 높이기 위해 현대 국어에서는 ‘드리다, 뵙다, 여쭙다’와 같은 특수한 어휘를 사용하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주로 선어말어미 ‘-습(술)-, -줍(줄)-, -습(술)-’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중세 국어에서 객체높임법이 사용된 예를 살펴볼까요?

[탐구 자료]

- 중세 국어에서 객체높임법이 사용된 용언의 예

기본형	선어말어미	용례
돕다	-습-	돕스븍니 ㉠
듣다	-줍-	듣줍고 ㉡
보다	-습-	보스븍면 ㉢

- ① ㉠은 현대 국어에서 ‘도우시니’의 형태로 바뀌어 객체높임을 표현하겠군.
- ② ㉡이 사용된 문장은 현대 국어에서라면 ‘뵙다’라는 어휘를 사용하여 객체높임을 표현하겠군.
- ③ ㉠, ㉢은 선어말어미의 받침 ‘븍’을 뒷말에 이어 적어 표기하겠군.
- ④ ㉠~㉢이 포함된 문장에서는 목적어나 부사어 자리에 높임의 대상이 왔겠군.
- ⑤ ㉠~㉢을 보니, 중세 국어의 객체높임 선어말어미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군.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소비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무엇이며, 그 요인들과 소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성립하는가의 문제를 다루는 이론을 소비이론이라고 ㉠ 부른다. 케인즈는 현재 얻고 있는 처분가능소득의 절대적 수준이 소비성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내용의 절대소득이론을 주장하였다. 즉 개인의 현재 소득 중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의 양이 소비를 좌우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이 이론은 소득과 소비의 관계를 너무 단순하게 설명하여 현실의 소비행위를 충분히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프리드만은 처분가능소득을 항상소득과 일시소득으로 구분하여 소비성향을 설명하는 항상소득이론을 제시했다. 항상소득은 정기적 소득을, 일시소득은 일시적인 여건의 변화로 인해 생긴 소득을 뜻한다. 항상소득이론에 따르면 항상소득의 변화와 일시소득의 변화가 소비 결정의 중요한 요인이며, 사람들은 자신의 항상소득을 고려하여 소비를 비교적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하고 싶어 하는 성향을 지닌다고 한다. 따라서 불황기에 일시소득이 감소하더라도 항상소득이 일정하다면 사람들은 미래에 얻을 소득을

기대하고 종전과 비슷한 소비수준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반면, 호황기에 항상소득이 일정한 상태에서 일시소득이 증가하면 그것을 전부 소비하지 않고 대부분을 저축한다고 보았다. 즉 사람들은 일시소득의 변동에 따라서는 소비를 크게 늘리거나 줄이려 하지 않지만, 항상소득의 변화로 소득 증가가 예상된다면 늘어난 소득 대부분을 소비를 늘리는 데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항상소득이론은 항상소득의 변화와 일시소득의 변화를 소비 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던 것이다.

항상소득이론과 마찬가지로, 모딜리아니 등이 제시한 생애주기 이론도 소비자들이 소비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성향을 가졌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생애주기이론은 일생에 걸친 소득과 소비 변화 양상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항상소득 이론과 차이가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청년기에는 앞으로 소득이 늘어날 것을 예상하여 자신의 소득보다 더 높은 소비수준을 유지한다. 반면 중·장년기에는 소득이 많아지더라도 이를 모두 소비하기보다는 청년기의 빚을 갚고 은퇴 후를 대비하기 위해 저축을 하게 된다. 또한 은퇴 후에는 근로소득이 거의 없지만 중·장년기에 저축한 돈으로 종전과 비슷한 소비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즉 사람들은 생애의 어떤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상이한 소비성향을 나타냄으로써 소비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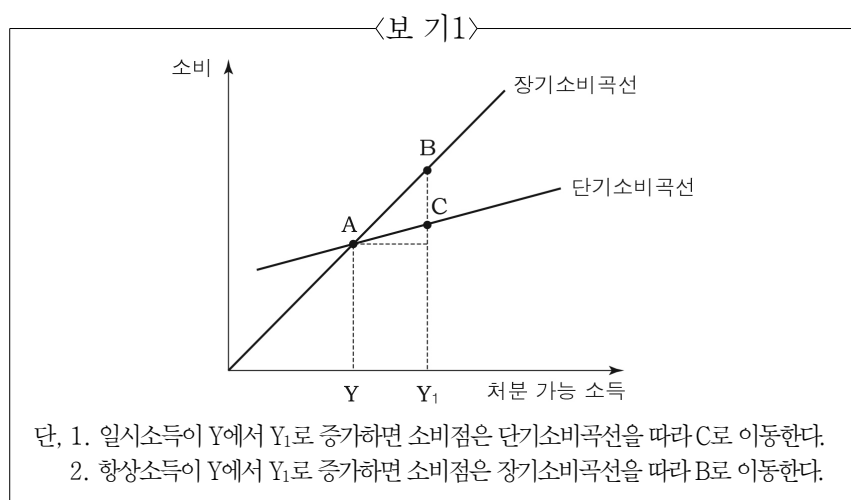
항상소득이론과 생애주기이론은 케인즈의 소비이론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여러 경제 현상에 대한 이론적 틀을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소비가 현재 소득뿐 아니라 미래소득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론화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 소비성향: 소득에서 차지하는 소비의 비율을 말하는 것.

17. 윗글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논지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 ②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익숙한 대상에 비유하여 어려운 개념들을 설명하고 있다.
- ④ 서로 다른 이론의 차이점을 부각하며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 ⑤ 통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후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18. <보기1>은 항상소득이론에 따른 소비성향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윗글과 <보기1>을 이해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2>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2>

- ㄱ. 항상소득과 일시소득이 모두 Y에서 Y₁로 증가했을 때 소비의 증가 폭은 항상소득이 증가한 경우가 일시소득이 증가한 경우보다 크다.
- ㄴ. 소비점이 A에서 B로, A에서 C로 각각 다르게 이동하는 것은 소득의 종류에 따른 결과이다.
- ㄷ. 불황기라도 항상소득이 증가한다면 소비점은 A에서 B로 이동하기보다는 A에서 C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 ㄹ. 일시소득이 Y에서 Y₁로 증가할 때 소비점이 A에서 B로 이동하지 않고, A에서 C로 이동하는 이유는 소비를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하려는 성향 때문이다.

- | | | |
|-----------|-----------|--------|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 |

19. 윗글을 이해한 학생들이 <보기>에 대해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올해부터 ‘갑’은 과장으로 승진하여 월급이 이전보다 30만 원이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축은 늘리지 않았다. 그런데 회사의 최근 영업 실적이 좋아져 100만 원의 특별 보너스를 받았는데, 그 중 20만 원을 소비에 사용하고 80만 원은 저축하였다.
- 유명한 배우인 ‘을’은 현재 은퇴한 상태로 소득이 거의 없다. 얼마 전 그는 TV에 출연하여, 무명배우로 지냈던 청년 시절과 연기력을 인정받아 많은 돈을 벌게 된 중년 시절의 삶을 소개한 바 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의 소비수준이 무명배우였던 청년 시절부터 은퇴한 현재까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이다.

- ① 절대소득이론으로는 처분가능소득이 낮았던 ‘을’의 청년 시절부터 은퇴 후까지의 소비수준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겠군.
- ② 생애주기이론으로는 ‘을’의 청년 시절과 중년 시절의 소비수준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설명할 수 없겠군.
- ③ 생애주기이론을 참고할 때, ‘을’이 중년 시절에 소비수준을 크게 높이지 않았던 것은 은퇴 이후의 소비를 고려한 행위이겠군.
- ④ 항상소득이론을 참고할 때, ‘갑’이 승진을 통해 소득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축을 늘리지 않은 것은 꾸준한 소득 증가를 예상했기 때문이로군.
- ⑤ 항상소득이론을 참고할 때, ‘갑’이 보너스로 받은 돈을 대부분 소비하지 않고 저축한 것은 보너스를 일시소득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로군.

20. 밑줄 친 단어 중, ㉠과 문맥적 의미가 같은 것은?

- ① 손님을 잔치에 부른다.
- ②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른다.
- ③ 그 가게는 값을 비싸게 부른다.
- ④ 소란스러운 거리에서 그녀를 부른다.
- ⑤ 이 문화재를 청동사자상이라고 부른다.

[21~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가 어떤 개체의 행동이나 상태 변화를 설명하고 예측하고자 할 때에는 물리적 태세, 목적론적 태세, 지향적 태세라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소금을 물에 넣고, 물속의 소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예측하기 위해서는 소금과 물, 그리고 그것을 지배하는 물리적 법칙을 적용해야 한다. 이는 대상의 물리적 구성 요소와 그것을 지배하는 법칙을 통해 그 변화를 예측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전략을 ㉠ ‘물리적 태세’라 한다.

㉡ ‘목적론적 태세’는 개체의 설계 목적이나 기능을 파악하여 그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전략이다. 가령 컴퓨터의 ‘F8’ 키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기만 하면 ‘F8’ 키를 누를 때 컴퓨터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할 수 있다. 즉 ‘F8’ 키를 누르면 컴퓨터가 맞춤법을 검사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 ‘지향적 태세’는 지향성의 개념을 사용하여 개체의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전략이다. 여기서 ‘지향성’이란 어떤 대상을 향한 개체의 의식, 신념, 욕망 등을 가리킨다.

가령 쥐의 왼쪽에 고양이가 나타났을 경우를 가정해 보자. 쥐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사용해야 할까? 물리적 태세를 취해 쥐의 물리적 구성 요소나 쥐의 행동 양식을 지배하는 물리적 법칙을 파악할 수는 없다. 또한 쥐가 어떤 기능이나 목적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개체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목적론적 태세도 취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쥐가 살고자 하는 지향성을 지닌 개체라고 전제하고, 그 행동을 예측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쥐는 생존 욕구에 의해 ‘왼쪽에 고양이가 있으니, 그쪽으로 가면 잡아먹힐 위험이 있다. 그러니 왼쪽으로는 가지 말아야지.’라는 믿음을 가질 것이다. 우리는 쥐가 고양이가 있는 왼쪽으로 가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런데 예측 과정에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쥐가 살아남기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개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향적 태세를 취한다는 것은 예측 대상이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개체임을 가정하는 것이다.

유기체는 생존과 번성의 욕구를 성취하기 위한 지향성을 지닌다. 그리고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축적된 정보에 새로운 정보를 결합하여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행동을 선택한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유기체는 외부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지향성을 지니며 진화해 왔다. 지향적 태세는 우리가 대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자세와 관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태세: 어떤 일이나 상황에 대처하는 태도나 자세.

21.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구체적 사례를 통해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 ②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면서 이를 서로 절충하고 있다.
- ③ 전문가의 견해를 토대로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 ④ 기존 이론의 문제점을 밝히고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시대적 흐름에 따른 핵심 개념의 변화 과정을 규명하고 있다.

22. 윗글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목적론적 태세는 개체의 진화 과정을 설명하는 기초가 되겠군.
- ② 물리적 태세는 개체의 행동을 예측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겠군.
- ③ 개체의 기능을 파악하는 것이 지향적 태세를 취하는 전제가 되겠군.
- ④ 지향적 태세를 취하려면 인간만이 합리적 행동을 하는 개체라는 인식을 버려야겠군.
- ⑤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개체는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겠군.

23. ㉠ ~ ㉢에 해당하는 사례를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3점]

〈 보 기 〉

- ㄱ. 달리던 자동차의 질량, 속도, 마찰력 등을 분석하여, 자동차가 급하게 정지할 때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예측한다.
- ㄴ.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엘리베이터가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는지를 판단함으로써, 엘리베이터의 움직임을 예측한다.
- ㄷ. 컴퓨터와 체스게임을 할 때 컴퓨터가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 전략을 다하는 유기체로 인식하여, 컴퓨터의 다음 수를 예측한다.
- ㄹ. 외계인이 지구에 왔다고 가정할 때 외계인이 어떤 욕구에 의해 지구에 왔을지 고려하여, 어떤 행동들을 취할지 예측한다.

	㉠	㉡	㉢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ㄴ, ㄹ	ㄷ	ㄱ
④	ㄴ, ㄷ	ㄱ	ㄹ
⑤	ㄷ	ㄴ, ㄹ	ㄱ

[24~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다양한 충돌 현상들을 물리학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충돌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운동량과 운동에너지에 대해 알아야 한다.

운동량은 'P(운동량)=m(질량)×v(속도)'로 나타내며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총알을 발사하기 전 총과 총알이 지닌 운동량의 합은 '0'인데, 이는 총알을 발사할 때에도 보존된다. 발사할 때 총알이 '+' 방향으로 운동량을 가진다면 반동으로 되튀는 총은 '-'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운동량을 갖기 때문이다. 결국 알짜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발사 전과 후 총과 총알이 지닌 운동량의 합은 같다. 이와 마찬가지로 충돌 현상에서도 충돌 전 물체들이 지닌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에도 그대로 보존된다.

그러나 운동량과 달리 운동에너지는 보존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물체가 충돌하면서 소리나 열, 형태 변화 등이 발생하여 운동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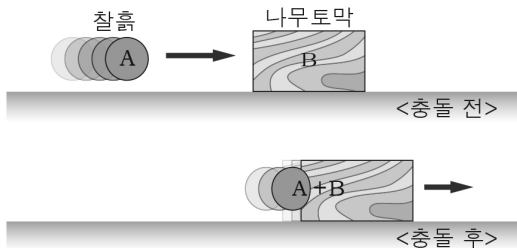
그러면 '운동량'과 '운동에너지'의 개념을 활용하여 다양한 충돌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충돌 시 운동량과 함께 운동에너지도 보존되는 충돌을 ㉠ '완전탄성충돌'이라 한다. 완전탄성충돌에서는 충돌하는 두 물체의 질량이 같은 경우 충돌 시 두 물체의 방향과 속력이 완전히 교환된다. 예를 들어 수평면에서 운동하는 물체가 정지해 있는 물체와 정면으로 완전탄성충돌을 한다면, 두 물체의 방향과 속력이 교환되어 운동하던 물체는 정지하고 정지해 있던 물체는 운동하던 물체가 지녔던 방향과 속력으로 운동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운동하는 두 물체의 정면충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완전탄성충돌은 일상생활에서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충돌 시 대부분 소리나 열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운동량은 보존되지만 운동에너지가 손실되는 충돌이 있다. 이를 '비탄성충돌'이라 하는데, 그 중에서 충돌 후 두 물체가 한 덩어리가 되어 움직이는 것을 ㉡ '완전비탄성충돌'이라 한다. 오른쪽

그림은 운동하던 찰흙(A)이 정지해 있는 나무토막(B)에 충돌한 후 나무토막과 한 덩어리('A+B')가 되어 움직이는 완전비탄성 충돌의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이 경우 다른 충돌에서처럼 충돌 전후의 운동량은 보존되지만, A의 운동에너지에 비해 'A+B'의 운동에너지는 줄어든다. 충돌 시 A가 지닌 운동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렇게 물리학에서는 운동량과 운동에너지의 개념을 통해 다양한 충돌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물리학적 설명은 충돌 시 충격완화 방법을 연구하는 데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등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 알짜힘: 외부에서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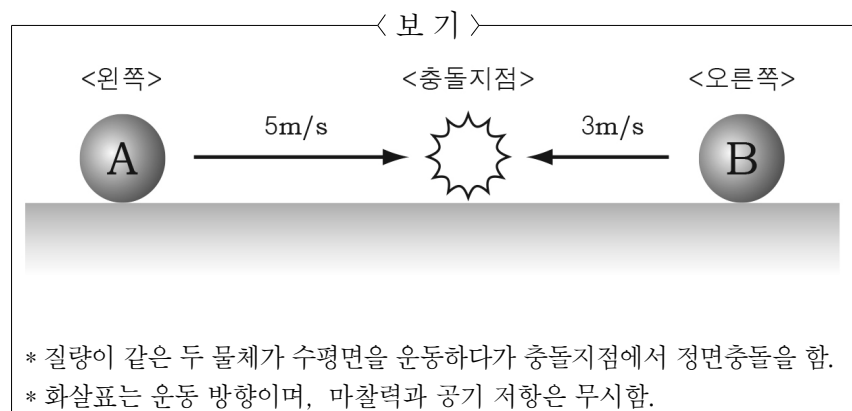


[완전비탄성충돌]

24.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알짜힘이 가해지면 물체의 운동량은 변한다.
- ② 총알을 발사하기 전 총이 가진 운동량은 '0'이다.
- ③ 같은 속도로 운동한다면 질량이 큰 쪽의 운동량이 많다.
- ④ 비탄성충돌에서는 물체의 운동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바뀐다.
- ⑤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충돌은 완전탄성충돌이다.

25. ㉠의 상황을 <보기>와 같이 나타냈을 때, 충돌 직후의 결과를 추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A, B가 한 덩어리가 된 채 정지한다.
- ② A, B가 한 덩어리가 된 채 2m/s의 속력으로, 충돌 지점 왼쪽으로 움직인다.
- ③ A, B가 한 덩어리가 된 채 2m/s의 속력으로, 충돌 지점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 ④ A는 5m/s의 속력으로 충돌 지점 왼쪽으로, B는 3m/s의 속력으로 충돌 지점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 ⑤ A는 3m/s의 속력으로 충돌지점 왼쪽으로, B는 5m/s의 속력으로 충돌 지점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26. ㉡의 구체적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골프채를 휘둘렀더니 골프공이 멀리 날아갔다.
- ② 공을 바닥에 굴렸더니 조금 굴러가다가 멈추었다.
- ③ 농구 골대에 공을 던졌더니 림을 맞고 튀어나왔다.
- ④ 창을 표적에 던졌더니 창이 박힌 채 표적이 뒤로 움직였다.
- ⑤ 얼음판 위에서 스케이트를 신고 펜스를 밀었더니 내가 뒤로 밀려났다.

[27~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동양의 산수화에는 자연의 다양한 모습을 대하는 화가의 개성 혹은 태도가 드러나 있는데, 이를 표현하는 기법 중의 하나가 준법이다. 준법(皴法)이란 점과 선의 특성을 활용하여 산, 바위, 토파(土坡)* 등의 입체감, 양감, 질감, 명암 등을 나타내는 기법으로 산수화 중 특히 수묵화에서 발달하였다.

수묵화는 선의 예술이다. 수묵화에서는 먹[墨]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대상의 다양한 모습이나 질감을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거친 선, 부드러운 선, 곧은 선, 꺾은 선 등 다양한 선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느낌, 분위기를 표현한다. 이 과정에서 선들이 지닌 특성과 효과 등이 점차 유형화되어 발전된 것이 준법이다. 반면 채색화에서는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묵화에서보다 준법이 그다지 중시되지 않았다.

준법 가운데 보편적으로 쓰이는 것에는 피마준, 수직준, 절대준, 미점준 등이 있다. 일정한 방향과 간격으로 선을 여러 개 그어 산의 등선*을 표현하여 부드럽고 차분한 느낌을 주는 것이 피마준이다. 반면 수직준은 선을 위에서 아래로 죽죽 내려 그어 강하고 힘찬 느낌을 주어 뾰족한 바위산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한다. 절대준은 수평으로 선을 긋다가 수직으로 꺾어 내리는 것을 반복하여 마치 ‘ㄱ’자 모양이 겹쳐진 듯 표현한 것이다. 이는 주로 모나고 거친 느낌을 주는 지층이나 바위산을 표현할 때 쓰인다. 미점준은 쌀알 같은 타원형의 작은 점을 연속적으로 찍어 주로 비운 뒤의 습한 느낌이나 수풀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

준법은 화가가 자연에 대해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의 결과를 표현하는 수단이다. 화가는 준법을 통해 단순히 대상의 외양뿐만 아니라 대상에 대한 자신의 느낌, 인식의 깊이까지 화폭에 그려 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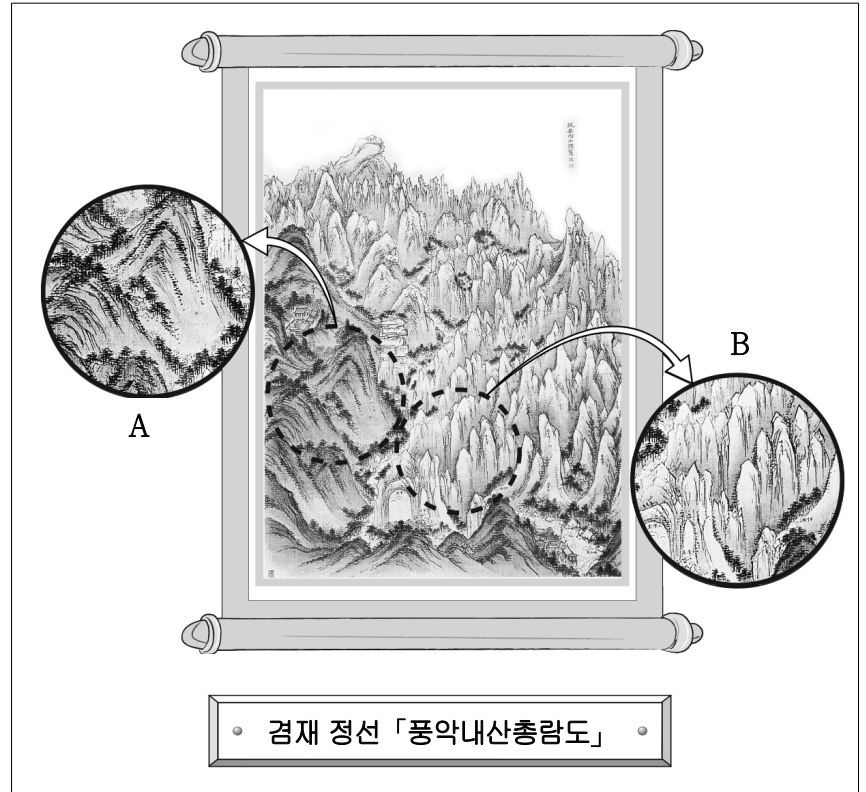
* 토파: 흙으로 쌓아 올린 둑.

* 등선: 등마루의 선. 즉 산이나 파도 따위의 불룩한 부분.

27. 윗글을 읽은 독자가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 ① 준법의 개념은 무엇인가?
- ② 준법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 ③ 준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
- ④ 채색화에서 사용되지 않은 준법은 무엇인가?
- ⑤ 수묵화에서 준법이 발달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28. 윗글을 바탕으로 다음 그림의 A와 B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절대준을 사용하여 산의 거친 느낌을, B에서는 피마준을 사용하여 산의 차분한 느낌을 표현하고 있군.
- ② A에서는 피마준을 사용하여 산의 부드러운 느낌을, B에서는 수직준을 사용하여 산의 강한 느낌을 표현하고 있군.
- ③ A에서는 수직준을 사용하여 산의 힘 있는 느낌을, B에서는 미점준을 사용하여 건조한 바위산의 느낌을 표현하고 있군.
- ④ A에서는 피마준을 사용하여 산의 부드럽고 차분한 느낌을, B에서는 절대준을 사용하여 산의 모난 느낌을 드러내고 있군.
- ⑤ A에서는 수직준을 사용하여 산의 강하고 힘찬 느낌을, B에서는 절대준을 사용하여 산의 거친 느낌을 표현하고 있군.

[29~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네 나이 벌써 열여섯이다. 선배들 중에 조금이라도 명성이 난분들은 그 나이에 벌써 법도를 세워 학식과 문리(文理)*가 대강은 성취되었었다. 그런데 너는 아직도 어린 학생으로 수년 전에 비해 큰 진보가 없으니, 어찌 가슴 아프고 부끄럽지 않겠느냐.

내가 보기에 너는 자질이 영성하고 성급해서 전혀 침착하지 않고 치밀한 기상이 없다. 그 때문에 일상적인 언행과 일 처리에 데면데면한 경우가 많고 차근차근 신중히 생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문장 공부도 너무 거칠어서 독서하는 과정을 엄정히 세우고 날마다 목표를 달성해 가지 못한다. 특히 책임기를 좋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하루 중 일이 없을 때에 잠시라도 책을 들춰본 적이 없고, 간혹 들춰본다 하더라도 두세 판 혹은 한 판을 넘기지 못하고 그만두며, 읽은 부분도 바쁘게 훑고 지나가 전혀 자세하지 않고, 구와 글자를 띄어 읽는 것도 틀리기 일쑤이다. 그러니 그 문장의 의미를 찾고 사실을 검토하여 깊은 내용을 알 수 있겠느냐.

내가 만약 학문에 뜻이 없다면 내 진정 기대조차 하지 않으려니와, 그렇지 않다면 이전의 잘못을 깊이 뉘우쳐 옛 틀을 과감히 변화시켜라. 읽어야 할 기본서는 우선 과정을 엄정히 설정해 놓고 게으름 없이 달성해 가고, 간간이 『한서(漢書)』, 『사기(史記)』, 『당송팔대가문초(唐宋八大家文抄)』를 가지고 한 번에 네댓 판이나 예닐곱 판씩 읽되 구와 글자를 따라가며 일일이 이해하고,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 벼들에게 물어보아라. 이처럼 하는 것을 날마다 일상적인 일로 삼아서 수개월이 지나면 문리가 점차 통하고 의미가 점차 깊어져 자연히 그만두려 해도 그만둘 수 없게 될 것이다. 그 이후에는 무한히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니 지금 말하지 않더라도 그때 가서 내가 당연히 절로 알게 될 것이다. 부디 노력하여 나의 지극한 기대를 저버리지 말도록 해라.

— 김창협, 「송겸(崇謙)*에게 보냄」—

*문리: 글의 뜻을 깨달아 아는 힘.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아는 힘.

*송겸: 김창협의 외아들.

29. 윗글에서 글쓴이가 제시한 독서 방법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 ㄱ. 낱말이나 구절을 꼼꼼히 따져 가며 읽는다.
- ㄴ.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하여 자세히 읽는다.
- ㄷ. 의문 사항은 다른 사람에게 물어 해결해 가며 읽는다.
- ㄹ. 글을 전체적으로 훑어 본 후 내용을 예측하며 읽는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30. 윗글의 글쓴이 ‘A’와 <보기>의 글쓴이 ‘B’의 독서 태도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우리는 독서에서 무언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더 풍성한 힘을 얻고자 온 힘을 기울이고 의식적으로 자신을 재발견하기 위해 스스로를 버리고 몰두할 줄 알아야 한다. 아무 생각 없이 산만한 정신으로 책을 읽는 것은 눈을 감은 채 아름다운 풍경 속을 거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 헤르만 헤세, 「독서의 기술」 중에서

- ① A는 B와 달리 계획을 세워 꾸준히 독서해야 함을 중요시했다.
- ② A는 B와 달리 독자의 수준에 맞는 독서를 해야 함을 중요시했다.
- ③ A는 B와 달리 선입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독서해야 함을 중요시했다.
- ④ B는 A와 달리 다양한 분야의 글을 섭렵해야 함을 중요시했다.
- ⑤ B는 A와 달리 교양을 넓힐 수 있는 독서를 해야 함을 중요시했다.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진형수의 딸 진채경은 어릴 때 윤여옥과 약혼을 한다. 진채경의 오빠 진창운은 회남에 공부하러 떠나고, 진채경과 어머니 오부인은 제남부에 있는 윤여옥의 집에 가 있다. 그 사이 조문화가 진채경의 미색을 듣고 아들의 짝으로 청혼을 했다가 거절당한다. 조문화는 흥계를 써서 진형수를 옥에 가둔다. 이 소식을 듣고 진채경과 오부인은 서울 집으로 바빠 올라온다.

조문화는 오부인과 진채경이 서울의 옛집으로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는 부인의 친척 오라비 오낭중을 불러 말했다.

“진형수의 죄로 보자면 죽어 마땅하지만, 내가 입만 한 번 병긋하면 구해줄 수도 있소. 허나 지난번에 진형수는 나를 심히 업신여기며 우리 집의 청혼을 딱 잘라 거절했었는데, 지금 내가 원수를 은혜로 갚을 수는 없지 않소? 듣자니 그대가 진형수와는 친척간이라고 하니 진형수가 살아서 감옥 문을 나오는 걸 보고 싶다면 그 딸에게 이 말을 전하시오. 그 딸이 만약 효녀라면 틀림없이 어찌해야 하는지 알 것이오.”

오낭중은 원래 권세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며 그저 ‘네네’하기만 하는 위인이라서 손을 모으고 공손하게 말을 들었다. 그리고 바로 오부인을 찾아가 그 말을 전해주었다. 그러자 부인이 몹시 화를 내며 말했다.

“조문화 그놈이 감히 내 딸을 모욕하다니!”

채경이 분연히 아뢰었다.

“옛날 효녀 중에는 사형에 처해진 아버지의 죄를 대신하여 스스로 관가의 노비가 된 이도 있고, 또 몸을 팔아서 부모의 장례를 치른 이도 있습니다. 저의 몸과 머리카락, 피부는 모두 부모님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아버님이 무거운 형벌을 받으시게 되었는데, 자식으로서 모욕인지 아닌지를 따질 겨를이 있겠습니까?”

평소에 딸이 옥처럼 맑고 서릿발처럼 깨끗한 마음을 지녔다고 생각하고 있던 부인은, 채경의 이 말을 듣고 경악한 나머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한참 뒤에 눈물을 흘리며 탄식했다.

“충계정에서 학을 보고 읊었던 시가 언참(言讖)*이 되었으니 참으로 슬프구나. 내가 어떻게 네 마음을 의심하겠느냐? 하지만 딸을 죽이고 아비를 살리면 살아난 아비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옛사람의 말에 ‘내기에 황금을 건 사람은 분별력이 흐려진다’고 했다. 지금 내 마음이 황금을 내기에 건 사람과 같을 뿐이겠느냐? 너는 잘 생각해서 결정하거라.”

진채경은 조금도 거리낌 없이 직접 오낭중에게 혼인을 허락하겠다고 했다. 오낭중이 크게 기뻐하면서 조문화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조문화는 미칠 듯이 기뻐했다. 다음 날 조문화가 다시 엄승에게 청탁을 넣으니, 천자는 진공을 죽이지는 않고 운남으로 귀양을 보내라고 했다.

진공이 옥에서 나오자 부인과 채경이 붙들고 통곡하는데, 진공은 강개*한 모습으로 길게 탄식할 따름이었다.

“㉠내가 미리 기미를 알아차려 벼슬을 그만둘 것을, 우유부단하게 지체한 탓에 이 같은 몸쓸 일을 당했으니 누구를 원망하겠소. 그렇지만 죽을 목숨을 폐하께서 너그러이 용서하셨으니 이 또한 천지신명이 보살핀 덕이오.”

그러자 부인이 흐느끼며 조문화와 혼사하기로 한 일을 말했다. 진공은 머리털이 곤두설 만큼 화가 치밀었다.

“내가 차라리 처형당해 버려지는 시체가 될지언정 어찌 차마

도적놈과 사돈을 맺은 사람이라는 불명예를 견디겠소? 게다가 우리 딸은 세 살 때부터 이미 윤여옥과 약혼하여 지금 열한 해가 지났는데, 대장부라면 어떻게 자식을 팔아 목숨을 구하겠소?”

채경이 편안한 낯빛으로 아버지께 말씀드렸다.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 소녀가 경솔하게도 미리 허락을 하였습니다. 이미 깨진 그릇이니 말한들 어쩔 수 없습니다. 또한 세상일이 다 나름대로 살아날 방도가 있습니다. 아버님께서도 소녀를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는 태연한 기색이었다. 진공은 기가 막혀 하늘만 바라볼 뿐이었다. 그러다가 다시 가만히 생각해 보았다.

‘딸아이는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남다른 담력이 있었지. 지금 하는 말과 행동거지를 보니 틀림없이 자신의 몸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기발한 계획이 있는 게야. 그냥 그 뜻을 따르고 지켜 봐야겠다.’

그리고 물었다.

“네 계획이 무엇인지 말해보거라.”

채경이 이리이러하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진공은 한탄했다.

“키가 팔 척이나 되는 내가 멀쩡한 몸으로 더벅머리 어린아이에게 생사를 맡기다니, 그리고 너는 일개 여자의 몸으로 남장을 하고 사방을 떠돌아다닌다니.....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하는 내 신세가 참으로 서글프구나. 여기서 **운남**까지는 일만 칠백 리나 된다. 어린 여자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차라리 너는 **회남**으로 가서 창운이와 함께 지내거라.”

부인은 처음에는 채경이 목숨을 버려서 절개를 지킬 것으로 생각하여 칼로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심정으로 말없이 슬픔을 삼키고 있었다. 그러다가 품고 있는 계획을 듣고 나서는 놀랍고 감탄스러워 연신 채경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첩첩 가로막힌 산 너머로 생이별을 하려니, 참으려 해도 자꾸만 눈물이 흐르고 창자가 끊어질 듯하구나.”

진공과 부인이 귀양지로 떠나자, 채경은 방으로 돌아와 누워 밤낮으로 흐느껴 울었다. 조문화의 하인이 끊임없이 와서 혼인을 재촉했다. 채경은 유모를 시켜 말을 전하게 했다.

“이제 막 부모님과 헤어지니 마음이 먹먹합니다. 수십 일 정도 지내고 마음이 좀 진정된 뒤에야 혼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 조성기, 「창선감의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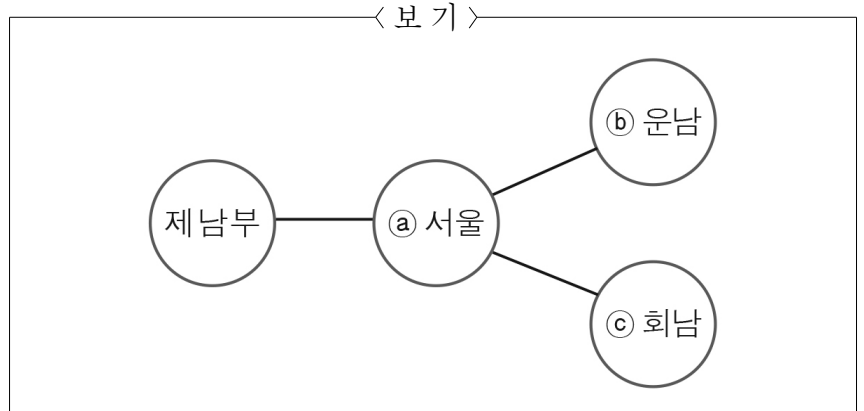
*언참: 앞날을 예언하는 말.

*강개: 의롭지 못한 것을 보고 의기가 북받쳐 원통하고 슬픔.

3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인물을 회화화하고 있다.
- ② 인물들의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③ 순차적 사건 진행으로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 ④ 시대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 ⑤ 전기적(傳奇的) 요소를 사용하여 인물의 비범한 능력을 드러내고 있다.

32. <보기>는 윗글의 공간적 배경을 도식화한 것이다.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진채경이 조력자를 만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공간이다.
- ② ㉠은 진공이 옥에 갇히자 진채경과 오 부인이 되돌아온 공간이다.
- ③ ㉡은 진채경이 남장을 하여 정체를 감추고 가려 한 공간이다.
- ④ ㉡은 진공이 외부의 압력에 의해 이동하는 공간이다.
- ⑤ ㉢은 진공이 진채경에게 ㉡ 대신 권유한 공간이다.

33. <보기>를 바탕으로 인물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창선감의록」은 충, 효, 열을 권장하는 정형(定型)적인 결말을 지향하면서도 삶의 방식에 따라 다양한 인물들을 선보이고 있다. 등장인물은 크게 유교 윤리를 지향하는 인물과 현실적 욕망을 지향하는 인물로 대비된다. 그 중 전자는 당시 사회적 관습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유교 윤리를 지향하는 인물과 현실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유교 윤리를 지향하는 인물로 구분할 수 있다.

- ① 오낭중은 권세 있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볼 때, 현실적 욕망을 지향하는 인물로 볼 수 있군.
- ② 진공은 진채경과 윤여옥의 약혼을 지키려 한 것으로 볼 때, 현실적 욕망을 지향한 인물로 볼 수 있군.
- ③ 조문화는 진공의 목숨을 담보로 진채경에게 결혼을 강요하는 것으로 볼 때, 현실적 욕망을 지향한 인물로 볼 수 있군.
- ④ 오부인은 딸이 절개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릴 것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볼 때, 사회적 관습의 틀에서 유교 윤리를 지향하는 인물로 볼 수 있군.
- ⑤ 진채경은 조문화에게 거짓으로 혼인 승낙을 한 것으로 볼 때, 현실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유교 윤리를 지향하는 인물로 볼 수 있군.

34. ㉡와 관련 있는 한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수원수구(誰怨誰咎) ② 방약무인(傍若無人)
- ③ 결초보은(結草報恩) ④ 고립무원(孤立無援)
- ⑤ 자가당착(自家撞着)

[35~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강호(江湖)에 봄이 드니 미친 흥(興)이 절로 난다.
탁료계변(濁醪溪邊)*에 금린어(錦鱗魚)*¹ 안주로다.
이 몸이 한가(閒暇)해움도 역군은(亦君恩)이샀다*.

강호(江湖)에 여름이 드니 초당(草堂)에 일이 없다.
㉠ 유신(有信)한 강파(江波)는 보내는 이 바람이다.
이 몸이 서늘해움도 역군은(亦君恩)이샀다.

강호(江湖)에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져 있다.
소정(小艇)에 그물 실어 흘리* 띄워 던져두고,
이 몸이 소일(消日)해움도 역군은(亦君恩)이샀다.

강호(江湖)에 겨울이 드니 눈 깊이 자히 남다*.
㉡ 샷갓 빗기 쓰고 누역*으로 옷을 삼아.
이 몸이 춥지 아니해움도 역군은(亦君恩)이샀다.

— 맹사성, 「강호사시가(江湖四時歌)」—

- * 탁료계변: 막걸리를 마시며 노는 시냇가.
- * 금린어: 싱싱한 물고기.
- * 역군은이샀다: 역시 임금님의 은혜이다.
- * 흘리: 흐르도록.
- * 자히 남다: 한 자가 넘는다.
- * 누역: 짚으로 만든 비옷.

(나) 된 서리 빠진 후의 산 빛이 금수(錦繡)로다.
㉢ 황운(黃雲)은 또 어찌 만경(萬頃)*의 펼쳐져 있는가.
어적(漁笛)도 흥에 겨워 달을 따라 부는구나.
초목(草木) 다 진 후의 강산(江山)이 묻혔거늘
조물(造物)이 야단스러워 빙설(氷雪)로 꾸며내니
㉣ 경궁요대(瓊宮瑤臺)*와 옥해은산(玉海銀山)*이 안저(眼底)*
의 펼쳐져 있구나.
인간(人間)을 떠나와도 내 몸이 겨를 업다.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 하고
바람도 쐬려 하고 달도 맞으려 하고
밤은 언제 좁고 고기는 언제 낚고
사립문은 뉘 닫으며 떨어진 꽃은 뉘 쓸려뇨.
아침이 낮브거니* 저녁이라 싫겠느냐.
㉤ 오늘이 부족(不足)하니 내일(來日)이라 유여(有餘)하랴.

— 송순, 「면양정가(倅仰亭歌)」—

- * 만경: 아주 많은 이랑. 지면이나 수면이 아주 넓음을 이르는 말.
- * 경궁요대: 아름다운 구슬로 꾸민 궁궐과 대.
- * 옥해은산: 옥으로 된 바다와 은으로 된 산.
- * 안저: 눈 아래.
- * 낮브거니: 부족하니.

35.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자연물을 매개로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반성하고 있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심리를 부각하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자연물의 속성을 활용하여 인간이 지녀야 할 바람직한 덕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자연물을 통해 풍류를 즐기고 있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화자의 심리가 투영된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내적 갈등을 제시하고 있다.

36. <보기>를 참고하여, (가)에 대해 학생들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강호사시가」는 유교적 이상이 현실화된 시기에 지어진 것으로, 여기에는 화자의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의 조화와 함께 개인의 평안한 삶을 가능하게 한 임금의 치적에 대한 감사가 나타나 있다.

- ① 각 수의 초장과 중장은 주로 화자의 사적인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군.
- ② 각 수 종장의 ‘이 몸이 ~해움도’는 사적인 삶의 모습을 압축하여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군.
- ③ 각 수 종장의 ‘역군은(亦君恩)이샀다’는 신하라는 공적인 삶과 관련지어 한 말이라 할 수 있군.
- ④ 화자는 걱정이나 탈 없이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삶을 가능하게 한 임금의 은혜에 대해 감사해 하고 있군.
- ⑤ 화자의 공적인 삶이 사적인 삶과 조화를 이루게 된 이유는 유교적 이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화자의 노력 때문이군.

37.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강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자연과 어우러진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소박한 생활을 나타내는 소재를 활용하여 화자의 검소한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 누렇게 익은 곡식을 황운에 비유하여 가을의 풍요로움을 나타내고 있다.
- ④ ㉣: 눈 덮인 자연의 모습을 미화하여 화자가 처한 공간의 아름다운 경치를 강조하고 있다.
- ⑤ ㉤: 대구와 설의를 활용하여 덧없이 흘러보낸 시간에 대한 회한을 드러내고 있다.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선생님 서화는 예(藝)입니까, 법(法)입니까, 도(道)입니까?”
 “도다.”
 “그럼 서예(書藝)라든가 서법(書法)이라는 말은 왜 있습니까?”
 “예는 도의 향이며, 법은 도의 옷이다. 도가 없으면 예도 법도 없다.”

“예가 지극하면 도에 이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 예는 도의 향이 아니라 도에 이르는 문이 아니겠습니까?”

“장인(匠人)들이 하는 소리다. 무엇이든 항상 도 안에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글씨며 그림을 배우는 일도 먼저 몸과 마음을 닦는 일이겠군요?”

“그렇다. 그래서 왕우군(王右軍)은 비인부전(非人不專)이란 말을 했다. 너도 이제 그 뜻을 알겠느냐?”

㉡ 이미 욕순에 접어들어 늙음의 기색이 완전한 석담선생은 거기서 문득 밝은 얼굴이 되어 일생을 불안하게 여겨 오던 제자의 얼굴을 살폈다. 그러나 고죽은 끝내 그의 기대를 채워 주지 않았다.

“먼저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면 이제 예닐곱 살 난 학동들에게 붓을 쥐어 자획을 그리게 하는 것은 어찌 된 일입니까? 만약 글씨에 도가 앞선다면 죽기 전에 붓을 잡을 수 있는 이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기예를 닦으면서 도가 아우르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평생 기예에 머물러 있으면 예능(藝能)이 되고, 도로 한 발짝 나가게 되면 예술이 되고, 혼연히 합일되면 예도가 된다.”

“그것은 예가 먼저고 도가 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도를 앞세워 예기(藝氣)를 억압하는 것은 수레를 소 앞에다 묶는 격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석담 문하에 든 직후부터 반생에 이르는 고죽의 항변이기도 했다. 그에 대한 석담선생의 반응도 날카로웠다. 그를 받아들일 때부터의 불안이 결국 적중하고 만 것 같은 느낌 때문이었으리라.

“이놈, 네 부족한 서권기(書卷氣)와 문자향(文字香)을 애써 채우려 들지는 않고 도리어 요망스런 말로 얼버무리려 하느냐? 학문은 도에 이르는 길이다. 그런데 너는 경서(經書)에도 뜻이 없었고, 사장(詞章)도 즐거워하지 않았다. 오직 붓끝과 손목만 연마하여 선인(先人)들의 오묘한 경지를 자못 여실하게 시늉하고 있으니 어찌 천예(賤藝)와 다름이 있겠는가? ㉢ 그래 놓고도 이제 와서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앞사람의 드높은 정신의 경지를 평하려 들다니 뻔뻔스러운 놈.”

그러다가 급기야 그들 두 불행한 사제가 돌아서는 날이 왔다. 고죽이 서른여섯 나던 해였다.

그 무렵 고죽은 여러 면에서 몹시 지쳐 있었다. 다시 석담의 문하로 돌아간 그 8년 동안의 그의 고련(苦練)은 열성스럽다 못해 참담할 지경이었다.

(중략)

방 안에서 한눈에 들어오는 장독대 곁 화단이었다. 몇 포기 시들어 가는 풀꽃 옆에 초헌이 서화 꾸러미를 내려놓자, 고죽이 다시 소리 높여 명령했다.

㉣ “불을 질러라.”

그제서야 방 안이 술렁거렸다. 일부는 고죽을 달래고 일부는

달려나와 초헌을 붙들었다. 모두가 쓸데없는 소란이었다. 자기를 달래는 사람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고죽이 돌연 벽력같은 호통을 쳤다.

“어서 불을 붙이지 못할까!”

그런데 알 수 없는 것은 초헌이었다. ㉤ 그 역시 까닭 모르게 노한 얼굴이 되어 잠깐 고죽을 노려보더니, 말리려는 사람을 거칠게 제쳐 버리고 불을 질렀다. 뒷날 고죽을 사이비(似而非)였다고까지 극언한 것으로 보아, 그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석담선생적(的)인 기질이 고죽의 그 철저한 자기 부정(自己否定) 또는 지나친 자기 비하(自己卑下)에 반발한 것이리라. 마를 대로 마른 종지와 형겅인데다가 개중에는 기름까지 먹인 것도 있어 서화 더미는 이내 맹렬한 불꽃으로 타올랐다. 신음 같은 탄식과 숨죽인 흐느낌과 나지막한 비명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어떤 사람에게는 고죽 일생의 예술이 타고 있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처절한 진실이 타고르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고죽의 삶 자체가 타는 듯도 보였다. 드물게는 불타는 서화 더미가 그대로 그만한 고액권 더미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었다. 반세기 가깝게 명성을 누려 온 노대가, 두 대통령이 사람을 보내 그의 서화를 얻어 가고, 국전 심사위원도 한 마디로 거부한 고죽의 진적(眞蹟)들이 한꺼번에 타 없어지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때 고죽은 보았다. 그 불길 속에서 홀연히 솟아오르는 한 마리의 거대한 금시조를, 찬란한 금빛 날개와 그 힘찬 비상을.

—— 고죽이 숨진 것은 그날 밤 8시경이었다. 향년 72세.

— 이문열, 「금시조(金翅鳥)」—

38.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②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사건에 현장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③ 인물의 내적 독백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지연시키고 있다.
- ④ 동일한 사건을 서로 다른 시각에서 관찰하여 보여주고 있다.
- ⑤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39. ㉠~㉤을 통해 인물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끊임없이 서화를 연마하면 도에 이를 수 있다는 고죽의 예술관이 드러나 있다.
- ② ㉡: 고죽이 도에 대한 가르침을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석담의 기대감이 드러나 있다.
- ③ ㉢: 정신 수양에 대한 노력 없이 예술적 기교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고죽에 대한 석담의 꾸짖음이 드러나 있다.
- ④ ㉣: 고죽의 예술가로서의 철저한 자기 부정이 드러나 있다.
- ⑤ ㉤: 자신을 붙든 사람들과 고죽의 호통에 대한 초헌의 노여움이 드러나 있다.

40.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금시조」는 주인공의 예술적 고뇌와 성장 과정을 다룬 예술가 소설의 전형적인 작품이다. 주인공의 평생에 걸친 예술적 고뇌와 방황은 유가적 사상, 즉 전통적인 예술관을 지향하는 스승과의 갈등에서 기인한다. 이는 오히려 예술을 예술로 대하고자 하는 근대적 예술관을 지닌 주인공으로 하여금 예술적 자아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탐색을 시도하게 한다. 그 결과 주인공은 스승의 예술관을 수동적으로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창조자로서 독자적인 미적 성취를 이루어 끝내는 예술적 완성을 이룬다.

- ① 도가 없으면 예도 없다는 석담의 생각은 유가적 사상을 바탕으로 한 전통적인 예술관이라 할 수 있겠군.
- ② 예와 도에 대한 고죽과 석담의 논쟁은 고죽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겠군.
- ③ 고죽이 자신의 작품을 불태워버린 것은 능동적인 창조자로서 미적 성취를 위한 의지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④ 고죽이 불길 속에서 솟아오르는 금시조를 본 것은 그가 진정한 예술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군.
- ⑤ 8년 동안 고죽이 감내한 고련은 스승의 예술관을 계승하기 위한 고죽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탐색으로 이해할 수 있겠군.

[41~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
포화에 이즈러진
도룬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해 한다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일광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새로 두 시의 급행 열차가 들을 달린다
포푸라나무의 근골(筋骨) 사이로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내인 채
한 가닥 꾸부러진 철책이 바람에 나부끼고
그 위에 셀로판지(紙)로 만든 구름이 하나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호울로 황량한 생각 버릴 곳 없어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 저쪽에
고독한 반원을 굶고 잠기어 간다

- 김광균, 「추일서정(秋日抒情)」 -

(나) 아마존 수족관집의 열대어들이
유리벽에 끼여 헤엄치는 여름밤
세검정 길
장어구이집 창문에서 연기가 나고
㉠ 아스팔트에서 고무 탄내가 난다
열난 기계들이 길을 뚫이면서
질주하는 여름밤
상품들은 덩굴져 자라나며 색색이 종이꽃을 피우고 있고
㉡ 철근은 밀림, 간판은 열대지만
아마존강은 여기서 아득히 멀어
㉢ 열대어들은 수족관 속에서 목마르다

변기 같은 컷바퀴에 소음 부글거리는
여름밤
열대어들에게 ㉣ 시를 선물하니

노란 달이 아마존 강물 속에 향기롭게 출렁이고
아마존 강변에 ㉤ 후리지아꽃들이 만발했다

- 최승호, 「아마존 수족관」 -

41.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역설적 표현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시어의 반복과 변형을 통해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 ③ 계절적 배경을 통해 시적 분위기를 환기하고 있다.
- ④ 시상의 반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⑤ 공간의 대비를 통해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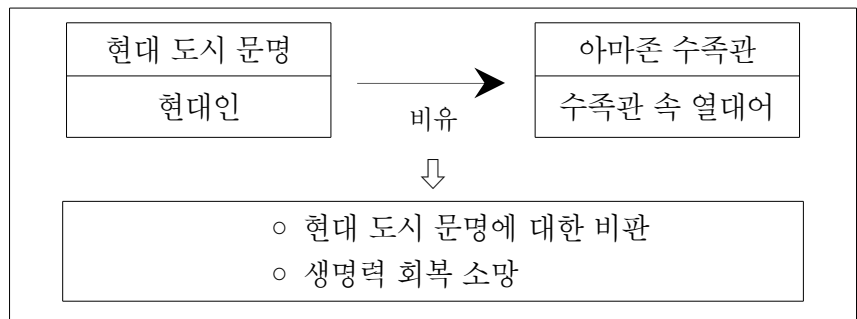
42.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추일서정」은 시각적 이미지와 원근법을 사용하여 도시의 풍경을 묘사한 작품이다. 그리고 이러한 회화적 구성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작가는 역사적 사실을 작품의 소재로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당대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기보다는 대상의 이미지나 그에 대한 정서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물질문명적 소재를 비유의 아름다움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기도 했다.

- ① ‘낙엽’과 ‘포푸라나무’는 근경, ‘급행 열차’와 ‘구름’은 원경을 이루면서 시 전체가 하나의 풍경화처럼 구성되는군.
- ② ‘폴-란드 망명정부’라는 소재를 사용하여 당대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군.
- ③ ‘흰 이빨’을 드러낸 ‘공장의 지붕’과 ‘돌팔매’가 잠기어 가는 도시 풍경을 통해 황량하고 고독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군.
- ④ ‘셀로판지’는 물질문명과 관련된 소재로, 구름을 표현하는 보조관념으로 쓰여 비유의 아름다움을 실현하고 있군.
- ⑤ ‘자욱-한 풀벌레 소리’는 소리까지도 시각화한 표현으로서 작품의 회화성을 형성하는군.

43. (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고 할 때,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 현대 도시의 부정적 이미지를 형상화한 것이다.
- ② ㉡: 도시 건물의 철근과 간판에서 열대 아마존의 모습을 연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 ③ ㉢: 물질에 대한 욕망을 추구하는 현대인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다.
- ④ ㉣: 현대인의 생명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정신적 가치로 볼 수 있다.
- ⑤ ㉤: 화자가 추구하는 생명력이 넘치는 세계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44~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탐화봉접(探花蜂蝶)이란 말이 있듯이 벌과 나비는 꽃을 찾아 다닌다는 면에서 같은 짝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관찰해 보면 벌과 나비처럼 대립적인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드물 것이다.

벌은 꽃을 향해서 곧바로 날아간다. 그것들은 가능하다면 최단거리의 일직선을 택해 날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나비는 그렇지 않다. 나비는 곧장 꽃을 향해서 나는 법이 없다. 그것들은 위로 아래로 혹은 좌우로 변화무쌍한 곡선을 그린다.

벌이 꽃을 향해서 행진을 한다고 한다면 나비는 꽃을 보고 춤을 춘다고 하는 편이 어울릴 것이다.

꿀을 따려는 목적은 다 같아도 이렇게 그 방법이나 태도에 있어서는 정반대의 길로 갈라져 있다. 꿀을 따기 위해 일직선으로 난다는 것은 벌의 근면성을 상징한다. 한눈을 팔지 않는다. 오직 벌이 그 날개를 움직이는 것은 꿀을 따오기 위한 ‘노동’ 속에서만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꽃을 향해 날아가는 벌은 공장의 기계처럼 움직인다.

그러나 하늘하늘 날면서 꽃의 주변을 맴도는 나비는 노동이나 근면보다는 쾌락의 상징으로 보여진다. 단순히 꿀을 따는 목적만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기보다는, 꽃 그 자체와 놀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언어도 마찬가지다. 의미를 전달한다는 같은 목적이라 할지라도 ‘벌의 언어’와 ‘나비의 언어’는 서로 다르다. 꽃 그리고 꿀. 언어에게 있어서 그것은 하나의 메시지다. 일상적인 자연 언어나 과학적인 ‘메타’ 언어들은 벌처럼 일직선으로 날아가고, 시인의 언어는 나비처럼 복잡한 곡선을 긋고 움직인다.

빵을 굽는 사람이 ㉠ 빵이라고 말할 때 그 뜻은 빵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말의 기호는 뚜렷한 코드에 실려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시인이 ㉡ 빵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빵이면서 동시에 빵이 아니라 마치 예수의 말처럼 그것은 육체일 수도 있고, 세속적인 모든 욕망을 뜻할 수도 있다. 시인의 언어는 코드에서 이탈하고 또 변칙을 일으키면서 메시지 주변을 맴돈다. 어느 때는 메시지보다도 오히려 그러한 나래의 움직임 자체가 더 소중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비록 나비가 먼 길로 이탈하고, 또 오랫동안 허공에서 맴돈다 할지라도 벌과 다름없이 결국엔 꽃에 가 앉는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목적인 꿀을 얻는다는 것이다. 벌은 규율이나 조직력, 자기 희생의 가혹한 집단적인 힘—이를테면 노동을 통해서만 꿀을 얻을 수 있지만, 나비는 자유와 즐거움 그리고 자기 표현의 기쁨 속에서 그 꿀을 획득한다. 꿀벌에게 있어서 꿀을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지만, 나비에게 있어서는 설령 꿀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춤’만은 남는다.

즉, 나비는 그 자체가 꽃을 닮은 존재다. 꿀을 닮은 존재다. 그러나 벌에게 있어 꽃과 꿀은 단지 욕망의 목적물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벌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은 꽃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오히려 가시 같은 독침이다.

시인들은 ‘벌의 언어’가 아니라 ‘나비의 언어’로 이 삶의 의미를 따내야만 한다.

— 이어령, 「벌의 언어와 나비의 언어」 —

4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타인의 삶을 관찰하며 일상의 소중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과거에 겪은 일을 떠올리며 지나온 삶을 성찰하고 있다.
- ③ 자연물에 빗대어 변화된 세태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 ④ 옛 사람들의 견해를 인용하여 인생의 지혜를 전달하고 있다.
- ⑤ 서로 관련되는 대상을 대비하여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45. ㉠과 ㉡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벌의 언어, ㉡은 나비의 언어와 각각 대응한다고 할 수 있군.
- ② ㉠과 달리 ㉡은 뚜렷한 코드에서 변칙을 일으키게 되므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겠군.
- ③ ㉡과 달리 ㉠은 그 언어를 사용한 사람이 자기 표현의 기쁨을 느낄 수도 있겠군.
- ④ ㉡과 달리 ㉠은 그 의미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일상적인 자연 언어라고 할 수 있겠군.
- ⑤ ㉠과 ㉡ 모두 의미를 전달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군.

※ 확인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